아이 울음소리 뚝…산부인과 사라지고 마을도 없어진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단위:%〉

아이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2〉 전남 저출산 실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을이 늘고 있다.

곡성 목사동면과 죽곡면, 구례 토지면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딱 하루 아이울음소리를 울렸다. 이들 면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1명씩이었다. 자칫 아이 울음소리가 끊길 뻔했다.

◇**10개군 출생아수 300명이하**=전남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전남 출생아 수는 1만2532명으로, 전년(1만3980명)대비 10.4%포인트 감소했다. 2015년(1만5061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16.8%(2529명) 급감했다.

2016년 전남 합계출산율은 1.47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낳는 아기를 말한다. 시군별로는 장흥이 1.01명으로 가장 낮았다. 화순(1.13명), 순천(1.25명), 목포(1.27명), 고흥(1.35명), 곡성(1.35명), 무안(1.41명), 여수(1.46명)가 뒤를 이었고, 이들 지역은 전남 평균을 밑돌았다.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웃돈 지역은 해남이 2.42명으로 유일했다.

인구 3만205명(지난해 9월 기준)인 곡성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고작 116명이었다. 전남에서 가장 적다. 곡성에서는 2000년 355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2002년 278명,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97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제는 100명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근 구례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만7052명이 사는 구례군은 지난해 121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쳤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郡)에서 지난해 아기가 300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은 10개 군이다.

연간 신생아 300명은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흔히 쓰인다.

전남에서는 곡성·구례를 비롯해 장흥(161명)·함평(164명)·진도(186명)·신안(207명)·강진(214명)·고흥(230명)·보성(232명)·담양(299명) 등이다. 이 중 곡성·구례·장흥·함평·진도 5개 군은 100명대에 불과했다.

전남에서 신생아 수 300명 이하가 처음 등장한 곳은 2001년 구례군이었다. 이후 16년 사이에 10개 군으로 불어났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탓에 이들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전남에서 분만이 불가능한 지역은 나주·구례·보성·화순·장흥·무안·함평·진도 등 13곳이다. 담양·곡성·영암·장성·신안은 아예 산부인과가 없다.

이 때문에 산모들은 아기를 낳으려면 1시간 넘게 도시로 가야 하는 곳이 많다. 복지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수와 인근 도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분만 취약 지역으로 지정, 산부인과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분만 취약 지역이 6곳이나 된다.

◇**저출산이 부른 인구절벽**=저출산에 따라 전남 16개 군이 소멸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한국의 지방소멸 2' 연구에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8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9만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위험지수가 0.48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2년 0.58, 2014년 0.53, 지난해 0.5로 턱걸이 했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고흥군이 0.167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에 진입한 곳은 신안·보성·함평·곡성·진도·장흥·구례·강진·완도·해남·담양·장성·영광·영암·화순군 등 무려 15곳이나 됐다.

특히 고흥군(0.167)과 신안군(0.203)은 전국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또 화순군은 2012년 0.51에서 지난해 0.41로 급격히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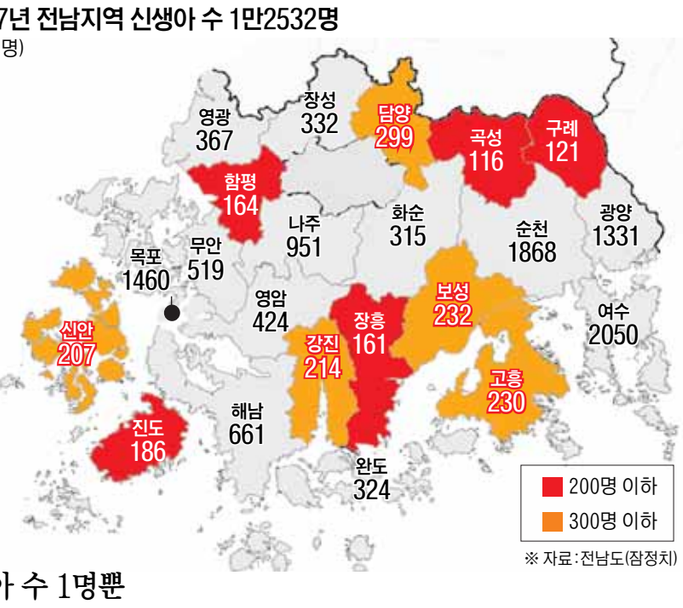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지난해 0.48에서 올해 0.53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도 0.54로 소멸 주의 단계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광양시(1.075)만 '1'을 넘겨 정상 단계였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젊어 소멸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광주 광산구(1.723)가 유일했다. 서구(1.196)와 북구(1.083)는 정상 단계였고, 남구(0.858)와 동구(0.610)는 소멸 주의 단계였다.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85곳에 이른다. 읍·면·동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3708곳 중 1490곳(40.2%)이었다. 특히 전남은 323개 읍·면·동 가운데 81.1%인 262곳이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017년 전남지역 신생아 수 1만2532명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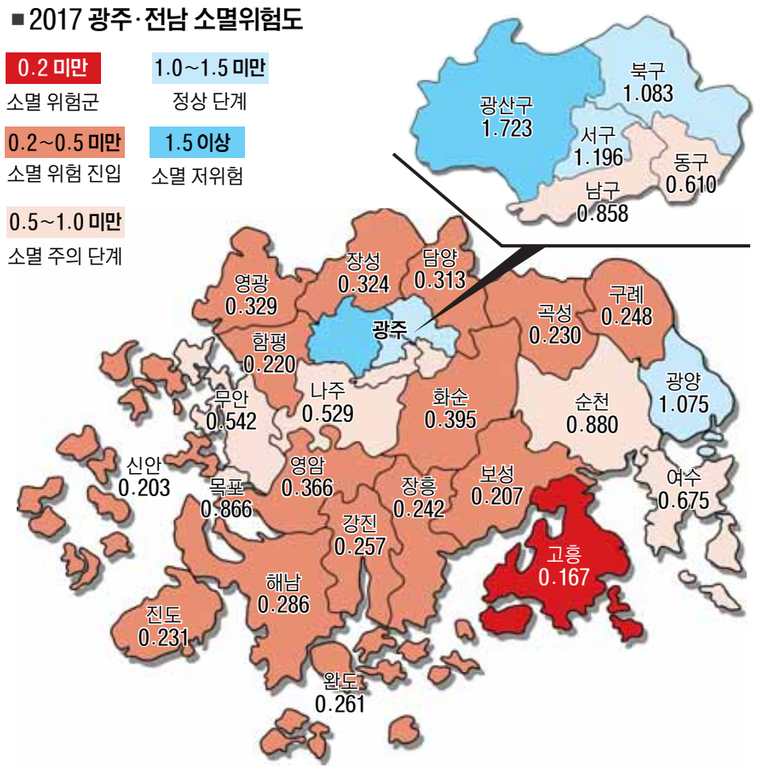
※ 자료:전남도(잠정치)

곡성 목사동면·죽곡면·구례 토지면 지난해 출생아 수 1명뿐

10개 군 한해 300명 미만…아기 낳으려면 1시간 넘게 도시로

전남, 광역단체 첫 '소멸위험단계'…신안 등 15곳 소멸위험 진입

■ 2017 광주·전남 소멸위험도



전남도민 30.2%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가장 시급"

저출산 해결책 설문

전남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남도민은 '영유아 보육 및 보육비 지원 확대'(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신·출산 지원 확대'(16.8%), '육아휴직제도 활성화'(12.4%), '직장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9.9%),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9.1%) 등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9월 표본가구 1만9152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한 '2017 전남 사회조사' 결과다.

전남도민은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지만, 지난 2015년(42.9%)에 비하면 12.7%포인트 낮아졌다. 2년 사이에 보육과 관련한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임신·출산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2~3%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휴직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심이 많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민 2명 중 1명(50.1%)이 '자녀 2명'이라고 답했다. 이 중 24%는 3명, 14.1%는 4명이라고 했고, 1명이라는 답변은 6.8%였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는 2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명 15.6%, 3명 12.8%였다. 연령이 많은 70세 이상에서는 30%만이 2명을 꼽았고, 56.4%는 3명 이상(3명 28.9%, 4명 27.5%)은 낳아야 한다고 바랐다.

지역별로는 시지역의 경우 1~2명에 대한 의견이 64.6%, 3~4명 31.7%로 나타났지만, 군지역에서는 1~2명은 52.9%, 3~4명은 41.5%로 다자녀에 대해 바람이 크게 높아졌다.

'아들 1명만 있어도 괜찮다'는 응답은 64.4%, '딸 1명만 있어도 괜찮다'는 응답은 6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의 젊은층은 '딸 1명만 있어도 된다'는 의견이 76.9%에 달했다.

2016년 전남의 혼인건수는 8544건으로, 지난 2011년 1만266건으로 1만건을 웃돌았으나 계속 줄어들어 급기야 9000건이 무너졌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 32.9세, 여자 29.5세였다. 초혼 연령은 10년전(2007년 남자 31.1세, 여자 27.4세)과 비교하면 남자 1.8세, 여자 2.1세 늦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림

'출생 축하방'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 보내 주세요

광주일보 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아이가 꿈이다'에서는 2018년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에게 들려주는 덕담, 태명에 얽힌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출생 축하방'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idream@kwangju.co.kr